

서울숲컨서번시

인터뷰 서울숲에서 만나요

서울숲 녹지 매니저 조우리 인터뷰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을 향해, '습지생태원'

서울숲 동물농장 화려한 옷을 입은 방귀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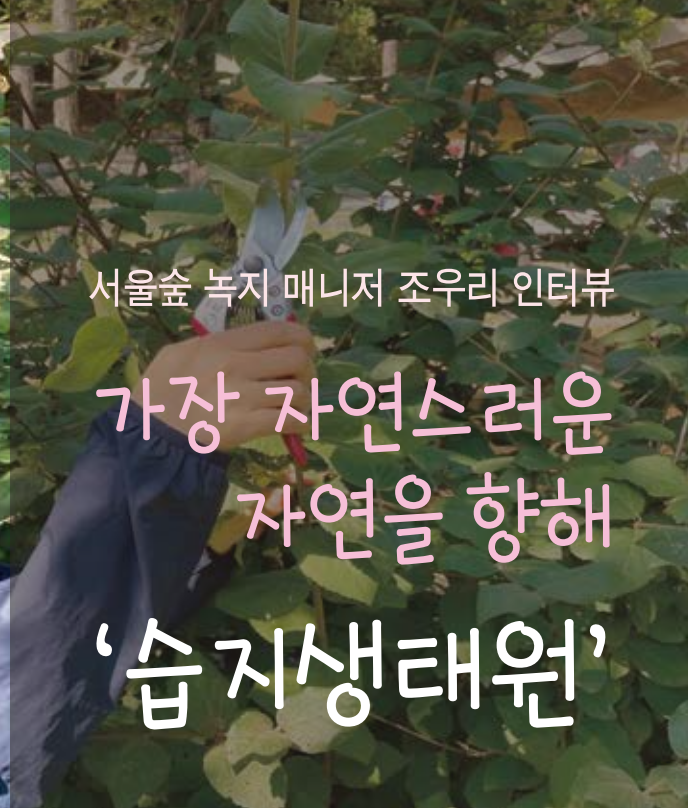
서울숲 소식

[전시] 서울숲의 자연을 재발견하다

가드너가 들려주는 서울숲공원 신규정원 조성 소식

- 두 번째 <느린 산책의 정원> 탄생
- <쉬었다가길>이 더 길~어집니다

[인터뷰 서울숲에서 만나요]



서울숲 녹지 매니저 조우리 인터뷰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을 향해 '습지생태원'

녹지 2구역팀 조우리 매니저 △

파란 하늘과 햇빛이 아름다운 가을 날, 서울숲 습지생태원에서 조우리 매니저를 만났다. 조우리 매니저는 서울숲에서 습지생태원의 녹지를 관리하고 있다. 서울숲 내에서는 비교적 방문객이 적고, 덜 알려진 습지생태원을 녹지 2구역팀 습지 담당 매니저, 조우리와 함께 돌아보며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먼저 자기소개를 해 달라

서울숲공원에서 2구역 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3년차 매니저 조우리다.

📍 2구역은 어디를 말하나?

녹지 2구역은 무지개언덕과 꿀벌정원, 나비정원, 곤충식물원, 생태숲, 사슴사, 은행나무숲, 습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그중에서도 은행나무숲과 습지를 담당하고 있다.

📍 실은 습지가 메인 공원에서 지리상 조금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 서울숲에서는 비교적 사람들의 발길이 좀 덜 닿는 곳이라 더 궁금한 게 많다. 습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 달라.

습지 같은 경우는 서울숲에서도 조금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습지는 유수지(*평지나 넓은 강물에서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곳) 근처에 있어서 주로 물가에 있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 버드나무와 억새, 갈대류들이 많고, 노랑어리엔 등 연못 안의 식물도 많이 있다. 그리고 습지에는 유아숲체험원이 속해 있어서 아이들이 단체 학습, 프로그램 등의 목적으로 많이 놀러오는 곳이기도 하다. 또 유수지 인근에는 새들이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생태적으로도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비 등의 철새류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 논습지를 조성해 버드 기르고 있다. 이런 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조류관찰대도 습지에 위치하고 있다.

📍 철새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인가?

서울숲은 지정학적으로 종량천과 한강이 맞닿은 곳이라 철새들이 지나가는 길목이라고 알고있다. 그중에서도 습지는 종량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야생 조류를 비교적 많이 볼 수 있다.



△ 습지생태원은 서울숲의 가장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완전히 습지에 서식하는 건 아니지만 잠깐 들러 물을 마시고 쉬었다 가는 장소인 걸로 안다. 그래서 습지생태원은 더 생태적인 공간이다. 보이기 위한 관리도 물론 하지만 동식물을 위한 생태적인 관리? 그러니까 손을 덜 대는 관리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생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하는 곳이다.

생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관리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새들이 습지를 찾고, 또 습지엔 유수지와 연결된 호수가 있다. 거기에 다양한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고 이 어류들은 또 왜가리나 오리, 해오라기 같은 새들의 먹이가 된다. 물에 사는 식물은 이런 어류가 숨거나 서식할 집이 된다. 그래서 식물을 보기 좋게 하는 관점에서 보고 관리하지 않는다. 특히 어류, 소동물의 서식지가 되는 식물을 최대한 자연적으로 그대로 둔다. 또 습지는 물이 있고 다양한 동식물이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방제, 비료를 쓸 수 없다. 그런 걸 쓰면 물고기들에 해가 갈 거다. 그래서 해충이 생겼을 때나 나무에 병이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약을 치면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방제를 해야 하는데, 물리적인 방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나무에 트랩을 감아서 벌레가 거기 붙어서 죽게 하거나,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아예 가지를 자르는 식의 방제를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갈대가 서 있어야 하는데, 덩굴류의 유해식물이 전부 덮어서 다 넘어간 거다. 그래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베게 됐는데, 결정을 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다. 유해식물이라 너무 빠르게 퍼지고 그 주변 나무들도 병이 들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베기는 했는데, 거기도 사실 곤충 등 많은 소동물들의 서식처였을 거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게 매번 고민된다. 이런 것만 아니면 습지는 가능하면 손을 적게 대는 식으로 최대한 자연적으로 두려고 한다.



△ 습지생태원 유아숲체험원

그래서인지 서울숲의 다른 공간들 같은 정원이나 화단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습지라고 화단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디자인과 식물종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숲의 다른 정원과는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다. 우선 빗물이 고이는 유수지에 인접해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식물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일이 발생하거나, 한참을 물이 고여 있기도 한다. 그럴 때 썩거나 죽지 않는, 습지에 강한 제한적인 종의 식물들로 정원을 조성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뭔가 화단을 조성할 때 가끔씩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 번 조성하고 나면 식물이 피고 지면서 자연스럽게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원'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계절을 전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원을 기획한다. 사실 습지는 오랫동안 공원의 구석진 곳으로 방치되다시피 했던 곳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숲공원을 운영한 이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곳이 습지라고 생각한다. 이전에 음습한 느낌의 방치된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밝아지고, 사계절 예쁜, 잘 관리된 정원화 화단이 생겨났다.

주로 어떤 식물을 볼 수 있나?

봄에는 주로 샤프타 데이지가 있고, 여름에는 주로 부처꽃이나 천인국, 속근 해바라기, 나무수국 등을 볼 수 있고, 가을에는 억새류나 가우라 같은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을에 오면 버가 익어가는 것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겨울에는 억새랑 마른 나무수국을 볼 수 있다. 또 논습지 옆 기동정원에는 다양한 덩굴류를 심어서 사계절 볼거리가 풍부한 습지로 만들어가고 있다.



△ 습지생태원 호수 전경

이러한 관리 덕인지 예전에 비해 방문객이 늘어난 것 같다.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같다. 아무래도 지하철이나 주차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공원의 메인인 되는 공간과는 좀 동떨어진 곳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 느낀다. 샤프타데이가 한 무더기 피어있는 거를 누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걸 보기도 했고, 버가 있어서 일부러 그걸 보러 오시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래 사람들이 많고, 이미 잘 알려진 공간이 아니라, 아는 사람만 아는 숨은 공간이라는 것도 습지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울숲의 메인 공간, 그러니까 군마상쪽으로 들어와서 가족마당, 중앙호수 등 공원의 중심이 되는 공간에서 습지를 오려면 성수중고등학교 뒷길을 거쳐서 와야 하는데, 전에는 개나리가 피는 봄이 아니면 조금 음산한 분위기가 도는 산책로였던 것을, 개울을 따라

다양한 꽃과 식물을 보며 걸을 수 있는 '개울정원'을 산책로 전체에 길게 조성해, 습지로 가는 길도 예뻐졌다. 그래서 더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있을 것 같다. 여러모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 공간이 습지생태원이다.



△ 최근 기업의 후원으로 습지정원이 조성되었다

정원 이야기가 마침 나왔는데, 습지에 최근 기업 후원으로 습지정원을 조성했다고 들었다.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습지에는 직원들끼리만 '성동창고'라고 부르던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안에 쓰레기가 엄청 많았다. 여러 가지 사정에 방치되었다가 드디어 작년에 그 쓰레기를 다 버렸는데, 거기 가 텅 빈 콘크리트 터널 같은 모양이라 그 앞이 전부 뭔가 음습하고 한기도 좀 느껴지는 보기 흉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거기를 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원래는 측백나무 같은 걸 길게 심어 차폐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마침 락앤락에서 후원이 들어와서 '그러면 정원을 만들자' 라고 얘기가 된 거다. 그런데 그 부지를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들어오는 곳이라서 측백을 심기에는 환경적으로 맞지 않았다. 물이 고이는 땅이어서 물에 좀 잠겨도 잘 살 수 있는 수종으로, 측백나무 대신 삼색버드나무로 바꾸고, 키를 다양하게 해서 뒤쪽에 길게 줄지어 심고, 그 앞에는 물에 강한 초화를 이겨져것 심어 정원을 만들었다. 주로 삼색버드나무, 꽃창포, 별개미취, 돌단풍, 아이리스 등 물가나 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심었다. 락앤락의 후원 덕분에 자칫 어둡고 음습할 수 있던 공간이 밝고 예쁜 공간이 되어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다.

아직 식물이 충분히 자란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완공된 지 얼마나 된 건가?

한 달반에서 두 달 정도 된 것 같다. 본래 차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큰 나무를 심을까 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다 큰 나무는 구하고, 운반하는 데에 비용과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 더구나 삼색버드나무는 속성수이기 때문에 2~3년만 지나도 다 커버린다. 지금은 차폐기능에는 조금 비어 보이지만 2~3년만 지나면 충분히 차폐기능도 하고, 풍성한 정원이 될 걸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시공은 이미 한두 달 전에 마쳤지만 완성은 2년쯤 뒤에 되는 정원이라고 보면 된다.

습지정원 바로 옆에 논이 있는데 제비 서식 습터라고 안내판도 있다. 벼농사를 짓고 있고 코로나 이전에는 시민 대상

모내기과 추수 프로그램도 진행한 걸로 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습지는 철새가 오가는 곳이라 새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서울에서 보기 힘든 제비가 발견이 된 거다. 그래서 제비가 다음 해에도 넘어오도록 서울숲이 제비들을 돕고 있다. 제비가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지푸라기와 진흙도 제공하고, 마실 물이랑 각종 벌레들도 제공하기 위해 이에 가장 적합한 논을 만들게 된 거다. 제비가 매년 찾아오고 있다.



△ 2019년까지 모내기, 추수하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도 반응이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아쉽게 됐다.

맞다. 시민들이 직접 모도 심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탈곡도 해서 나눠 가져가기도 하는, 재미있고 반응도 좋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 아쉽다. 그래도 제비를 포함해 습지를 찾는 많은 새들을 위해 계속 모를 심고 추수를 하고 있다. 새들이 겨울 내 먹을 수 있는 알곡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추수한 벼단을 거의 탈곡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놓았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든다. 녹지 담당자가 농사를 짓는 것도 좀 뜬금없고, 새들 먹이를 심어서 철새들을 돌보는 것도 좀 어색하다.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나?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습지를 담당하게 되면서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겼다. 논습지는 이미 조성이 되어있어서 이어서 하게 된 거고, 습지의 녹지 관리 기획이나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 논습지에서 제비먹이서식지를 가꾸고 있다

자연스럽게 습지의 식물을 새나 물고기 등의 서식지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도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다. 특히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서 벼농사가 너무 막막했다. 모판을 구하는 것부터 험난한 과정이었고, 모내기는 재미있었지만 그걸 키워내는 과정은 무척 힘들었다. 계속 잡초도 뽑아줘야 하고, 태풍이 오면 쓰러진 벼들을 세워줘야 하고, 물도 항상 채워줘야 하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해서 농사 초보에게는 엄청 괴로운 일들의 연속이었다. 그걸 다른 녹지 관리와 함께 해야 하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다.



📌 녹지 담당자의 일로만 생각을 하면 사실상 경험할 일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장점이다. 서울숲공원 습지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않았을 일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서 그건 좋은 것 같다. 말하자면 좋은 스펙이 된 것 같다. 벼농사 스펙. (웃음) 힘든 건 힘들지만 새로운 걸 하는 거라 재미있다. 언젠가는 이 경험을 쓸 데가 있지 않을까?

📌 끝으로 방문객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 달라.

습지는 좀 덜 알려진 곳이고 최대한 자연적인 공간을 목표로 하는 곳이다. 그런데 어쨌든 도시공원이다 보니 방문하는 분마다 습지를 찾는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유아숲체험원을 주로 사용하면서 그곳의 화단을 좀 더 예쁜 꽃으로 가꿔주기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풀을 벤다던지 좀 더 관리를 해 달라 요청하기도 하고, 또 조류 관찰을 목적으로 방문하셨던 분들 중에는 해충 방제나 가지치기, 풀베기 등의 작업을 불안해하기도 한다. 정답은 없는 것 같다. 어쨌든 습지는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는 생태적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해충과 유해식물로부터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방치하지 않고 가능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서울숲의 다른 공간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자연스러운 미가 있는 곳으로 가꾸고 있다. 그런 자연을 즐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지가 외진 곳이다 보니까 식물을 도난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즐겨주시고, 내 집 정원처럼 귀하게 여겨주시면 좋겠다.



서울숲 곤충식물원 희귀식물 특별전

10월 22일 ~ 11월 21일, 11시~16시
@서울숲 곤충식물원, 무료관람
※ 월, 화요일은 곤충식물원 휴관일입니다.

전시호: 멸종위기 Ⅱ급 ▶
Bupleurum latissimum Nakai



서울숲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식물과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환경 관련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숲 곤충식물원에서 희귀식물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희귀식물과 관련된 전시를 통해 생물 다양성의 가치와 생태 보전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쳐 있는 시민들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작은 전시로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숲의 자연을 재발견하다

오는 10월 15일~17일 서울숲 일대에서 <숲극장-서울숲에서 만나는 자연스토리> 전시가 개최된다.

코로나 19의 등장으로 일상의 활동과 만남이 줄어든 반면, 공원에 가거나 반려식물을 키우고, 베란다 탐조를 하는 등 개인이 오롯이 자연을 마주할 기회는 늘어났다. 이러한 자연 탐구의 연장선상에서, 서울숲의 자연을 재발견하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경관기획연구실과 모음아트버스가 (주)유품의 후원을 받아 개최하는 이번 전시는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발견한 서울숲의 새와 나무 등 자연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울숲의 자연과 새들의 이미지를 공원의 소리풍경과 함께 담은 영상 <새 소리 그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치채기 어려운 아주 작은 숲 생물들을 일러스트로 만나보는 <서울숲 작은생물>, 나무의 학명(Scientific Name)에 담긴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내는 <나무지도>와 18세기 풍경화가들이 자연 관찰 도구로 사용했던 클로드 글라스(Claude Glass)을 모티브로한 야외 설치작품 <풍경거울> 등 다채로운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전시는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 10월 15일~17일 3일간, 이동형 전시실인 아트버스와 서울숲 방문자센터 1층 이야기관에서 열린다. 전시기간 동안 관람객들에게 직접 '풍경거울'을 대여해 서울숲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 공유하는 SNS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주말 아침 생태숲을 거닐며 소리로 새를 관찰하는 <새 소리 산책> 워크숍, 나무의 라틴어 학명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는 특강 등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울숲컨서번시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드너가 들려주는 서울숲공원 신규정원 조성 소식



φ 두 번째 느린 산책의 정원 탄생

“느린 산책의 정원”은 작년에 수국을 주제로 해 ‘수국길’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되었어요. 이번 **느린 산책의 정원 2**는 수국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분위기와 동선에 중점을 두어 조성되었고 크게 자생정원, 물의정원, 컬러정원으로 공간을 구성했어요. 마찬가지로 신한금융투자의 후원으로 조성된 거고요. 지난 8월 중순부터 기획을 시작했고, 9월 중순쯤 기본적인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직 벤치설치 등 작업이 좀 남아서 정식 오픈은 10월 초가 될 것 같아요. 느린 산책의 정원2는 ‘그늘이 피워 낸 아름다움’을 테마로 꽃보다는 잎의 컬러나 질감이 특별한 식물로 구성했어요. 또, 수국길의 특징 중 하나가 서울숲에서 난 부산물로 울타리를 만든 것인데, 그 연장선으로 독특한 디자인의 나무 울타리를 만들어 숲정원의 한 부분을 표현했고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우리집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알려주세요^^”

가드너 박지연 매니저



φ 쉬었다가길이 더 길~어집니다

스타벅스의 후원으로 조성한 **쉬었다가길**을 더 길게 확장해서 새로운 정원을 조성하고 있어요. 쉬었다가길은 체육공원 옆 키 큰 나무만 있던 화단에 시민들이 쉬엄쉬엄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한 정원인데, 이번에 기존 쉬었다가길보다 더 큰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화단은 너무 답압된 곳이라서 먼저 토양개량을 마쳤고, 10월 14일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하고 있어요. 정식 개방은 10월 20일 경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 조성된 정원과 같은 컨셉이지만, 햇빛이 좀 더 많이 들어 해를 좋아하는 식물들이 더 많이 식재될 계획입니다. 쉬었다가길에 심어질 주요 식물은 송악, 산수국, 비비추, 이끼, 석산 등이 있습니다. 내년 여름부터 식물이 자리를 잡아 본격적으로 예뻐질 것 같아요. 내년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가드너 이예진 매니저



사육사와 함께 알아보는 동물 친구들의 짧은 근황

서울숲 동물농장



화려한 줄무늬 옷을 입은 이녀석의 이름은 **홍줄노린재**입니다. 홍줄노린재는 고약한 냄새를 뿜어 적을 공격하며, 향이 강한 식물의 꽃과 종자에 잘 모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인삼 등 약용 식물의 꽃과 열매에 해를 입혀, 약용식물 농가에는 골치 아픈 해충으로 미움을 받고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홍줄노린재는 농약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대표적인 곤충 중 하나로,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귀한 친구랍니다.

숲해설가 한 마디: “줄무늬 옷으로 뽐낸 방귀쟁이 멋진 신사 숙녀들!”



SEOULFORESTORY 2021.9.18~10.17

서울숲토리

서울숲에서 보내는 당신의 모습을 들려주세요

서울숲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잘 머물 수 있는 경험과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서울숲토리 SEOULFORESTORY

서울숲에서 보내는 당신의 모습을 들려주세요.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모아 <서울숲토리>
모음집을 만듭니다.

- 모음기간
2021.09.17(금)~10.17(일)
- 이야기 선별과 투표
2021.10.18(월)~10.31(일)
1차 선별 후, 2차 SNS투표
- 결과발표
2021.11.08(월)
서울숲공원 SNS공지 및 개별안내
※ 추첨을 통해 서울숲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비봉스봉

:비대면 봉사활동을 찾고 있나요?
공원에서 스스로 봉사활동해요.




보람보람로깅~

지도 한 장 들고 떠나는 서울숲 오리엔티어링

나도 서울숲 탐험가!


"스스로 탐험하며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서울숲 YouTube 채널 구독 이벤트

서울숲공원 유튜브채널 구독하고
방문자센터에서
선물 받아주세요!

서울숲 포스트잇
드림!

서울숲 소식지 구독자 설문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소식지를 읽은 소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서울숲 소식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